쇠고기 패닉 … 韓美 소값 동반 추락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 美 현지값 폭락

국내도 4월 중순 이후 폭락세 지속

돼지고기만 가격 급등 '나홀로 반사이익'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계속 수정되면서 국내 한우시장은 물론 미국 현지 소값도 출렁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소식이 전해진 4월 중순 이후 한우 가격이 폭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우리 정부측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미국 현지 쇠고기 가격이 폭락했다.

반면 쇠고기 대체재인 돼지고기 가격은 계절적 수요 증가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맞물린 대체수요 증대 등이 겹치면서 끝모를 오름세를 타고 있다.

◇'30개월 이상 수입금지'에 美쇠고기 가격 폭락=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시장 전면 개방 소식에 상승세를 거듭해온 미국 쇠고기 현지 가격이 다시 한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발표가 이어지면서 폭락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따르면 3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8월 인도분 소값은 파운드당 1.0035달러에 거래돼 전날보다 0.5% 하락했다. 소값은 이날 앞서 한때 1.0005달러까지 주저앉았다.

이로써 소값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하락하면서 지난 1주일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미국 소값은 3대 수출 시장인 한국의 수입확대 등 해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난 4월초 이후 14% 상승했다.

◇국내 쇠고기·닭고기 하락에 돼지고기 급등=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국내 쇠고기 가격은 물론, 돼지고기 등 기타 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20% 많은 24만t에 이를 경우 한우 암소와 수소 가격은 각각 5.7%와 4.6%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산지가격도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20%, 30%, 40% 늘어남에 따라 3.2%, 6.2%, 8.8%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내에서 쇠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들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돼지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산 쇠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로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3월 -0.6%, 4월 -1.9%, 5월 -0.2% 등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수입 쇠고기 가격 역시 지난 3월 -2.9%를 기록한 뒤부터 4월 -0.4%, 5월 -2.0% 등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닭고기 가격도 전월 대비로 지난 3월 -0.8%, 4월 -2.3%, 5월 -3.1% 등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비로 4월 13.1%, 5월 11.4% 등 2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콜센터·택배도 KS인증제 실시

서비스분야 도입 확대

47년간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KS(국가표준) 인증제가 서비스분야에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9일부터 콜센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센터에 대해 KS인증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KS표준으로 제정된 30개 서비스 분야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많거나 국가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설관리와 택배, 장례식장 등으로 KS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KS인증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는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펀드시장 불법광고 '천국'

적발 증권사 처벌도 안해 논란

증권사나 은행의 지점들이 펀드 판매를 위해 만든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적발되더라도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자산운용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6일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의 서울과 대구 소재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각종 탈법이나 편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나 법규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경고문언 누락(16개 지점) ▲광고물의 유효기간 위반(20개 지점) ▲협회나 준법감시인 심사필 미기재(18개 지점) ▲수익률 표시 위반(8개 지점) 등을 적발했다.

협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펀드 판매경쟁으로 일부 증권사의 불법 광고물은 제작건수나 내용의 불법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는 지적했으나 이후 고발 등 처벌조치는 전혀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제59조와 184조에 따르면 손실위험 관련 경고 문언의 경우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동시에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적시토록 돼 있다.

또 운용실적을 포함해 광고하는 경우 이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LPG값 또 오른다

내달부터 ℓ당 30원 안팎 … 택시·식당 타격 클듯

LPG(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이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다음달에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PG중에서 프로판가스는 가정과 일반식당에서 취사와 난방용으로, 부탄가스는 택시 등 화물의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서민생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LPG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인 사우디 아람코사의 6월 LPG 기간계약가격(CP)이 t당 부탄가스는 920달러, 프로판가스는 895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5월에 견줘 t당 부탄가스는 60달러, 프로판가스는 50달러가 각각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환율 등 여타 변수를 빼더라도 7월 국내 프로판가스는 kg당 50~6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ℓ 단위로 판매하는 충전소 차량용 부탄가스 가격도 ℓ당 30원 안팎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7월의 구체적인 인상폭은 20일 이후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LPG가격은 사우디 아람코사에서 매월 말에 다음달 적용될 LPG 기간계약가격을 통보하면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LPG를 수입,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업체인 SK가스와 E1이 결정해 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들 수입업체는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 1일 LPG가격을 크게 올렸다.

SK가스는 프로판가스는 kg당 1천253원으로 140원(12.6%), 부탄가스는 kg당 1천618원으로 137원(9.2%) 인상했다. 또 E1은 프로판가스는 138원(12.4%) 오른 kg당 1천251원으로, 부탄가스는 134원(9.1%) 오른 kg당 1천1616원으로 충전소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이런 LPG가격 인상으로 특히 수입회사들이 충전소에 공급하는 차량용 부탄가스의 가격은 충전소 마진 등이 더해지면서 ℓ당 처음으로 1천원대를 돌파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LPG차량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눈길 끄는 '아쿠아 슈즈'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은 4일 6층 스포츠 매장에 여름 신발로 각광받는 '아쿠아 슈즈'를 선보였다. '아쿠아 슈즈'는 통기성이 좋고 열과 물을 쉽게 방출하는 특징이 있어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골재채취·숙박시설 제한지구 등 113개 용도지역·지구 폐지 한다

골재채취금지구역, 숙박시설제한지구 등 113개 용도지역·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권도엽 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지역·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하고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비행안전구역은 규제대상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등 9개 지역·지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생태계보전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500미터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등은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상수원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환경정비구역 등도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지정근거가 마련된 지 3년이상 지났지만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임항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숙박시설제한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 113개 지역·지구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선 항공요금도 인상

내달부터 1만~2만원

국내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1만~2만원 가량 오른다.

대한항공은 최근 고유가를 반영해 국내선 항공요금에 유류할증료체계를 다음달 발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평균 인상률은 두자릿수가 되겠지만 구간에 따라 다르고 유가가 내려가면 요금도 내려간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선 요금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선 요금은 업계 자율로 결정하되 20일 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요금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역 소매판매액 큰폭 증가

4월 중 광주 1,297억 4.8%↑·전남 577억 1.1% 늘어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4월 소매판매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대형소매점 판매액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천297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4.8% 늘었다. 전남도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577억5천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 증가했다.

이같은 판매증가세는 전국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4월 전국의 소매판매금액은 총 20조8천130억원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0.9%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월의 12.7%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액은 올 1월에 9.6% 증가한 이후 2월에 7.2%, 3월에 8.7%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차량용 연료를 제외한 소매판매 증가율은 7.7%로, 이번 소매판매 급증 원인이 결국 유가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을 보면 차량용 연료의 판매액이 3조9천948억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26.5%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승용차 판매액은 19.4%, 비내구재는 14.2%, 서적·문구용품은 11.5% 늘었다. 차량용 연료와 승용차 판매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2%, 10.6%에 달한다.

소매업태별로는 백화점(4.3%), 대형마트(4.9%) 등 대형소매점이 4.7% 증가해 전월(7.8%)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모범 납세자 공항 출·입국 '혜택'

국세청, 470명에 전용창구 이용 카드 교부

국세청은 4일 고액, 성실납세자의 공항 출·입국 편의를 위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자로 470명을 추가 선정해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전용창구 이용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급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로 기준금액 이상 세금을 낸 사람과 누적 세금포인트 5만점 이상 납세자 가운데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기준에 맞더라도 탈세, 분식회계,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에도 299명을 선발해 올해들어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769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근로자·자영업자 선별 지원"

강만수 장관, '고유가 고통' 서민대책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가 5개월 연속 오르고 경상수지는 적자이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고유가 때문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처방과 함께 장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선별해 직접 지원하고 감세정책을 조속히 실행해 내수 및 성장 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단기 처방전을 실행하면서 감세라는 중장기 대응책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일정	[사무직/관리직/기능관리직/생산기능직]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7	062-951-8811
서울검사㈜	[광주공과학원]비파괴검사원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09	062-369-0790
한글과 컴퓨터 CQ교육사업부	컴퓨터 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373-5221
㈜동서건영	건축, 인테리어시공기술자 경력직	고졸/경력2년	1800~2000	06/10	062-524-0071
한국프라임제약㈜	경리 사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233-1110
㈜진서산업	생산부(조립,포장)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962-1726
메트라이프생명 빛고을지점	비서직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10	062-226-6191
코오롱건설	공사보조 및 자재관리(CAD포함)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6/11	062-959-1593
㈜호원	총무 및 식당관리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6/11	070-7547-8304
㈜현우기공	생산(공정)관리 경력사원	대졸/경력3년	2000~2200	06/14	062-954-4369
㈜현승	자동차 부품(후레임류)CO2 용접 및 로보트조작	고졸/경력2년	1800~2000	06/14	062-945-6389
㈜신한광고	3D MAX 코렐드로우 포토샵 캐드(숙련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944-7799
㈜에스디엠	총무, 품질관리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17	062-974-0085
㈜엠푸드시스템	프리미엄 알래스카 [롯데백화점-광주점]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7	031-746-23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액 50% 감면

기획재정부는 4일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 청정기, 가스 배송기 등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115개 환경오염방지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관세액(수입가격×관세율)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관세 감면은 오는 5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기존의 관세감면 113개 품목 중 고압밸브처럼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해진 9개 품목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하지만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가스 청정기, 가스 배송기, 세라믹 볼, 천연가스자동차용 완속 충전 설비 등 11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